



2022년 9월



이달의 포커스 뉴스

『베트남비즈니스뉴스』 창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2P

<기업탐방>

“여행용 기방·캠핑용품으로 ‘25년 매출 6천만 불 목표’” by 트리머스

20P

☑ <창간 2주년 지면축사> 박노완 대사, 코참 김한용 회장 ...	2
☑ 베트남 해외시장뉴스·월간 뉴스·프로젝트 동향	6
☑ <팀코리아 참여기관 소개> ...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18
☑ <기업탐방> ... 트리머스 백수영 대표(옥타 호치민지회장)	20
☑ <노무> 베트남 영주권 발급	전현우 변호사 25
☑ <법률 에피소드> 베트남 내 차명으로 사업 ..	김유호 변호사 27
☑ <통관>	FTA활용지원센터 박민설 관세사 29
☑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 <닌투언성>	34
☑ <이달의 보고서>	41
☑ 베트남 및 아세안지역 주요 경제 지표	42
☑ 사업안내 및 공지사항	47

풍요로운
한가위 되세요





『베트남비즈니스뉴스』 창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주베트남대한민국대사관 박노완 대사 지면 축하사



월간 『베트남비즈니스뉴스』의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점증하던 2020년 9월, 월간 『베트남비즈니스뉴스』의 창간은 신속·정확한 정보에 목말랐던 베트남 진출 우리 기업에 사막의 오아시스와도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베트남비즈니스뉴스』가 베트남의 주요 경제 정책 및 시장 동향은 물론이고, 현장의 생생한 경험을 담은 주요 기업 및 팀코리아 참여 기관 소개와 노무·세무·법률 등 주제별 전문정보를 총체적으로 망라하여 시의적절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기업인들께서는 『베트남비즈니스뉴스』가 제공하는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에 주목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한국과 베트남 간의 협력은 지난 30년간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으며, 그 바탕에는 우리 기업의 활발한 베트남 진출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북부와 남부 일부 대도시와 그 주변에 편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금월의 유망 성 투자 정보’는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잠재력이 풍부한 지방성에 대한 투자 환경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찾는 분들께는 아주 유용한 정보일 것입니다.

풍부한 노동력, 발전 중인 인프라, 우호적인 인센티브 제도 등의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갖춘 유망 지방성으로의 우리 기업 진출 확대는 베트남의 지역 균형 발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면서, 동시에 우리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올해는 수교 30주년을 맞는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은 기존의 교역, 투자, 개발협력, 관광 등의 전통적 분야에 더하여 경제안보, 보건, 기후변화 및 국방·방산 등 새로운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 양국간 협력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을 추진 중이기도 합니다.

이는 모두 지난 30년간의 협력 성과를 토대로, 양국 모두에 윈-윈이 되는 미래 30년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기업 진출 지역의 다변화는 베트남 전역의 균형 잡힌 발전에 기여할 것이며, 이러한 상생 발전은 지난 30년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긴밀한 미래 협력을 만들어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월간『베트남비즈니스뉴스』가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며 다양한 지역에서의 새로운 사업 활동에 동반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주베트남대사관 또한 코트라를 비롯한 우리 공공기관, 코참을 비롯한 우리 경제단체, 진출기업 및 재외국민들과 함께 팀코리아 기치 아래 한-베 관계 발전을 위해 계속 협업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베트남비즈니스뉴스』 창간 2주년을 축하합니다!

주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KORCHAM) 김한용 회장



코트라에서 발간하는 월간 ‘베트남비즈니스뉴스’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월간 ‘베트남비즈니스뉴스’는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을 위한 여론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역할을 한 만큼 앞으로도 베트남 진출 기업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해주는 매체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베트남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전 세계에서 떠오르는 시장입니다. 현재 빠른 속도로 경제회복을 달성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학자들은 베트남이 올해 6%대의 경제 성장률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경제의 빠른 회복 추세에 힘입어 양국 무역의 증가세 또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양국이 목표했던 2023년 교역액 1000억 달러 달성을 올해 이룰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런 추세라면 양국의 또 다른 무역 목표인 1500억 달러 달성 또한 2030년보다 빠르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과 베트남의 협력이 강화되고 베트남 진출 한국기업이 더욱 늘어날 수록 코트라에서 발간하는 '베트남비즈니스뉴스'의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전 세계 일류를 지향하는 우리 한국 기업들의 등대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간 '베트남 비즈니스 뉴스'를 매달 발간하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베트남비즈니스뉴스'가 되길 기원합니다.

'베트남비즈니스뉴스' 창간 2주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베트남 수출입 관련 최근 세무정책 방향과 RCEP 적용 현황

- 외국인투자기업의 면세혜택 관리감독 강화로 기업의 세무 관리 중요성 부각
- RCEP 체결 이후의 자유무역 확대 기대감이 상승하나 실무적용 난항

베트남 제조업 투자기업 수입세 면세

베트남에 진출하는 외국인투자 제조기업의 수입세 면세제도 활용이 정착되면서 관련 법제가 보다 정교화되고 있다. 수입 원재료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수입세를 면세해주는 해당 제도의 핵심은 완제품 단위당 제조 가공에 투입된 '소요량(Định mức thực tế)'을 산정하는 것인데 기업의 회계장부, 재고관리장부 상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 베트남 진출 제조기업이 데이터 관리측면에서 법률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가공된 데이터를 세관 정산 보고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세관데이터와 실제 기업 내부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해 세관조사 후 거액의 추징금을 고지받는 경우가 많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와 베트남 실무적용 지연문제

2022년부터 우리나라와 베트남을 포함한 총 15개국에 참가하는 RCEP 협정이 발효됐다. 역내국가 간의 교역을 강화하고 새로운 글로벌 가치사슬(GVC)을 조성할 이번 협정에 전 세계의 관심이 쏠렸다. 우리 관세청은 발 빠르게 대응하여 RCEP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도입, 관세율표 개정 등에 힘썼으며 RCEP 발효 직후 제도구비가 완결성있게 이루어졌다. 반면, 베트남은 2022년 1월 1일 RCEP 발효 이후에도 수출물품의 RCEP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수입물품의 RCEP 협정관세율 적용을 하지 않아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일본 기업들의 불만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베트남 산업무역부는 시행규칙 05/2022/TT-BCT를 공표하고 2022년 4월 4일부터 RCEP 원산지 물품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수출되는 물품에 베트남 정부는 RCEP 수입협정관세율 혜택을 부여하지 않고 있어 통상 마찰이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가 수입관세, 부가가치세의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이 있더라도 RCEP은 내국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국가 간 협정이므로 이를 위반하고 관세율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협정 위반으로 볼 수 있어 향후 정부 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우리 제조기업이 베트남에 투자 진출함에 있어 저렴한 노동력과 지리적 이점은 투자대상국으로서 베트남을 선택하게 하는 주된 요인이며,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의 세무정책 동향은 본문과 같이 세수확보를 위하여 다국적기업의 세제 관련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세제 혜택을 감소시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여전히 우리 기업의 베트남으로의 제조업 투자진출 방향성이 유지되는 상황에서 베트남 정부의 호혜적인 세무정책으로 정책방향이 변경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다. 여전히 베트남은 제조업 투자상대국으로서 다양한 이점이 존재하는 만큼, 베트남 정부의 무정책 방향성을 잘 파악하고 대응할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진출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생산기지 운영에 중요할 것이다.





2022 상반기 베트남 중부지역 경제리뷰

- 올 상반기 평균 성장률 7.63% 기록하며 빠른 회복세 시현
-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하반기 경기에 대한 전망은 엇갈려

2022년 상반기 베트남 중부지역 경제 현황

2021년 중부지역의 평균 GDP 성장률이 4.76%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7.63%를 기록한 2022년 상반기 중부지역의 경제 회복 속도는 굉장히 가파르다고 볼 수 있다. 성시별로 살펴보면, 꽝남성이 12.8%로 베트남 63개 성시 중에서 4번째로 높은 상반기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며 중부지역 경제 성장을 이끌었다. 중부지역 대표도시인 다낭시의 경우, 주력 산업인 관광 및 서비스업이 활기를 되찾으면서, GRDP 성장률이 2021년의 0.18%에서 2022년 상반기에는 7.23%로 상승하며, 중부지역에서 가장 큰 회복세를 시현했다.

산업별 경제 비중 및 성장률

산업별로 살펴보면, 다낭시는 2022년 상반기 서비스업 분야가 전년동기 대비 9.82% 성장하며, 전체 성장을 견인하였다. 꽝남성은 산업 및 건설 분야가 19.3% 성장하며 전체 성장세를 견인하였으며, 호이안 등 주요 관광지가 활기를 되찾으며 서비스업도 전년동기대비 6.5% 성장하였다. 특히, 산업 및 건설 분야가 성장을 주도하면서, 과거 관광산업의 비중이 높았던 경제구조에서 산업 및 건설 분야로 경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소비, 산업생산 및 투자 현황

베트남 중부지역 성시의 소매 판매는 대부분 두 자리 수 이상의 성장세를 시현하며, 경제가 회복됨에 따라 소비시장에도 새로운 활기가 돌고 있다. 특히, 다낭시는 관광이 재개되면서 2022년 상반기 전체 소매판매 규모는 중부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인 약 2,153백만 달러로 집계되었다. 산업생산지수(IIP)의 경우 꽝남성이 전년동기 대비 25%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꽝남성 제조업 분야에서 훈풍이 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반기 투자 집행 규모는 꽝찌성을 제외한 모든 중부지역 성시에서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였다. 다낭은 민간부문 투자가 19.4% 증가하며 시 전체 투자를 이끌었으나, 외국인 직접투자 집행 규모는 1.6% 증가로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장세를 기록하였다.

시사점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했던 2021년과 달리, 2022년 베트남은 '위드 코로나' 정책기조 하에 외국인 입국 전면 재개 등 경제 활동 정상화에 주력하고 있다. 베트남 중부지역 또한 베트남 전체 성장률 수치보다 빠르게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 경제전망은 낙관만 할 수는 없다. 우크라이나 사태, 코로나19 재유행 등으로 대외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비스업 비중이 높은 베트남 중부지역의 경우 향후 코로나19 재유행과 외국인 관광객 유입 추이에 따라서 하반기 경제 성장세가 좌우될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베트남 다낭시, 관광 재개로 경제회복에 청신호

- 다낭시 국제선 운항 전면 재개에 따른 관광산업 활기
- 한국 등 주요 관광객 유치 대상 국가의 코로나19 재확산 등도 불안요소

다낭시 국제선 재개 후 늘어나는 관광객

베트남 중부지역 대표적인 관광도시인 다낭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어느 도시보다 혹독하게 겪었다. 하지만, 국제선 운항을 전면 재개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되고 있다. 3월 15일 베트남 중앙정부가 해외관광객의 입국을 전면 허용함에 따라, 다낭시도 3월 27일 싱가포르 및 태국 방콕과 첫 국제선 정기편 운항을 시작으로 국내외 관광객을 본격적으로 맞이하였다. 국제선 운항재개 후, 6월말까지 약 3개월 동안 5만8천명의 해외관광객이 다낭을 방문하였으며, 국내 관광객도 상반기에만 전년동기 대비 39.6% 증가한 127만명이 다낭을 방문하였다.

활력을 찾아가는 다낭시 관광업계

관광산업의 핵심 분야인 숙박업의 경우 호텔의 투숙율이 2021년에는 11%에 불과했으나 2022년 상반기에는 주말 기준으로 75%에 육박하는 등 정상을 되찾고 있다. 올 상반기 숙박 및 서비스업 등 관광업계의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한 약 1억 3,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다낭시의 경제 성장을 견인했다. 관광객이 다시 찾기 시작하면서 소매업 등 파생분야도 활기를 띠고 있다. 다낭시 소매시장 관리개발부의 Dam Van Tam 부장은 “국제선을 재개한 4월부터 Con 시장은 하루 평균 4,000여 명이 방문하고 Han 시장은 하루 평균 1,0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2~3배 방문객이 늘었다”며 다낭시의 소매판매도 다시 활성화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양한 관광 캠페인, 여행객 지원 등 다낭시 관광 지원프로그램 본격화

다낭시 관광국은 관광산업의 조기 회복을 위해 여러 관광 지원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오행산, 참박물관 등 주요 관광명소의 무료 개방을 비롯해 Sun Group과 함께 ‘2022 다낭 여름 축제(Enjoy Danang Summer Festival) 관광 캠페인을 6월 11일부터 8월 15일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 다낭 강변에서 벌어지는 뮤직 페스티벌(Take me Music Festival) △ 안쭙 지구에서 벌어지는 도심댄스 축제 △ 비엔동 거리에서 열리는 아오자이 패션쇼 △ 아시안파크 불꽃축제 등 다양한 대규모 공연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시사점

다낭시의 관광산업 회복으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호텔 및 리조트 프로젝트도 재개되며 부동산 시장까지 열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관광객 대상 기념품, 호텔 어메니티(샴푸, 린스, 비누 등) 및 레저용품 등 소매판매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관련 분야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기회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장하는 베트남 전력 및 전력기자재 시장

-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안(PDP8) 총리 승인 대기 중
- 신재생에너지, LNG 발전 및 송전망 수요 증가에 따라 기자재 수요 확대

베트남의 전력산업은 베트남전력공사(EVN), 독립발전사업자, 전력수입자 등이 생산한 전력을 국영 전력송전공사(NPTC)가 송전하고 배전공사(PCs)가 이를 저전압으로 전환해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형태로 구성돼 있다. 주요 독립발전사업자로는 석유가스 독점 국영기업인 페트로베트남(PetroVietnam), 석탄생산과 유통을 독점하는 Vinacomin(Vietnamese National Coal and Mineral Industries Holding Limited)이 있다.

베트남 전력시장 동향

베트남 전력시장은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신재생 에너지, LNG 발전이 유망하다는 강점 및 정부의 전력 확충 계획, 외국인 투자 확대 등의 기회가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전기요금 통제, 송전망 노후화 등 약점과 토지 수용 및 환경영향 평가 난항, 법적, 재무적 불확실성 등 위기 요인이 있다.

1) 전력 수요 및 설치 용량

베트남의 발전설비 총용량은 2020년 기준 69.4GW로, 수력과 석탄화력이 각 30%, 태양광이 24%, 가스가 14%를 차지했다. 전력 소비량은 2020년 기준 214.3TWh에 달하고 지역별 전력 수요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 발전원별 계획: 신재생에너지 확대

베트남의 새로운 국가전력계획안은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분산형 전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총리실에 제출된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PDP8)은 아직 승인되지 않았는데, 정부가 선언한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재생에너지 총발전용량을 계속 수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송전망 구축 계획

현재 베트남의 송전망은 노후화 및 용량 부족 등으로 인해 원활한 전력 배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산업무역부에 따르면 베트남의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전체 전력 설비 용량의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 전력생산은 송전망 미비로 인해 8%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전력개발계획에 송전망 구축 계획을 포함시키고있어 송전망 구축이 확대될 전망이다.

시사점

제8차 국가전력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프로젝트의 경우 이후 개별 승인이 어렵기 때문에 최종 승인 버전 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진출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향후 베트남 시장에서 고성장이 예상되는 신재생에너지, LNG 발전을 중심으로 시장 진출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고효율 전력설비 및 신재생 발전 설비와 연계된 소규모 에너지 저장장치(ESS), 스마트 그리드 등 유망 분야의 EPC, 기자재 및 부품 시장 확대도 기대해볼 만하다.





[기고] 베트남 노동자의 임금 사정

기고자 : PERSOLKELLY Consulting 박숙자 노무사, 김민석 컨설턴트

임금은 사업 운영 확장과 같은 기업 경영 전반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베트남의 경우, 노동자 파업의 주요 원인이 임금 및 수당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베트남 시장의 임금 동향 및 이와 관련된 사항에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 베트남 노동자의 파업(Strike) 사정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 자료에 의하면, 노동법이 시행된 1995년 이후 베트남 전국적으로 3,000건이 넘는 파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된다. 그 수는 해가 거듭될 수록 크게 감소하는 추세이나, 현지 언론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2022년 1분기에 총 64건의 파업이 진행되었다 보도한 바 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40% 증가한 수치이다.

2) 파업의 원인은?

노동자들이 기업에서 파업을 하는 원인은 대부분 혜택과 권리를 둘러싼 분쟁에서 출발한다. 베트남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낮은 임금, 초과근무, 열악한 근로조건 등에 그 원인이 집중되어 있다. 구체적인 파업의 사례는 아니나, 실제 퍼솔켈리 컨설팅이 최근 7월 베트남 호치민에서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Human Resources Updates」에 참가한 기업들은 “임금 인상”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꼽은 바 있으며, 매년 이로 인해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3) 베트남의 최저임금 사정

임금수준의 지표로 가장 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는 바로 ‘최저임금(minimum wage)’이다. 베트남의 최저임금은 한국과 달리 “차등 적용”된다. 베트남 각 지역의 도시화 및 산업화 정도에 따라 4지역으로 구분되어진다. (2022년도 베트남 지역별 최저임금표는 원문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4) 한국 기업이 주로 진출하는 베트남 산업군의 임금사정

‘중국 제조 2025’*뿐만 아니라 생산 비용의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이점과 높은 성장 가능성으로 많은 분야의 기업들이 베트남을 찾고 있다. 이 중 제조업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실제 KOTRA 해외진출한국기업디렉토리 2020에 등록되어 있는 총 3,230여 개의 베트남 진출 기업들 중 1,667개(50% 이상)의 기업 역시 제조업 분야에 해당된다.

* ‘중국제조 2025’란 2015년 5월 8일 중국 국무원(國務院)이 제조업 활성화를 목표로 발표한 산업고도화 전략을 말한다.(네이버 사전)





베트남 섬유 전문 전시회 SaigonTex 2022를 통해 보는 섬유시장 트렌드

-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가치사슬 전반의 친환경 전환 수요 확대
- 구인난 해소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한 자동화 설비 수요 증가

지난 7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섬유, 의류, 염료 및 부직포 산업 전반을 다루는 섬유 전문 전시회인 SaigonTex 2022가 호치민에서 개최되었다.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친환경 생산 공정

패션산업의 가치사슬은 업스트림(원재료, 섬유사), 미들스트림(직물, 염색 가공), 다운스트림(완제품, 유통)으로 구성되는데 환경 파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이산화탄소 저배출, 용수 사용량 절감 및 폐수 재활용 생산 모델 등 친환경으로의 전환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베트남 또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친환경 생산공정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시회장에서도 관련 기업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수요 확대

전시장에는 보편적인 친환경 섬유인 폐 페트병을 재활용한 재활용 폴리에스터 뿐만 아니라 원두, 사탕수수, 굴 껍데기 등 다양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제품들이 전시되었다.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제품으로는 원사 뿐만 아니라 옷을 판매할 때 사용되는 의류용 라벨, 후크, 클립, 옷걸이 등 다양한 품목들이 있다. 친환경 의류 부자재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이전에는 단순히 가격 경쟁력만으로 제품을 납품할 수 있었으나 현재는 기업들이 상품 안전성,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 자연 분해 성분 사용 등 다양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자동화 생산설비 도입

전시회 현장에서 만난 섬유공장 설비 전문 업체와의 인터뷰에 따르면, 최근 섬유 공장들 중 구인난 해소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생산 공정 자동화를 고려 중인 곳들이 많고 견적 의뢰 건수도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증가했다고 한다. 노동집약산업 특성상 임금 상승 변화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데 베트남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폭이 평균 7.4% 수준이었고 올해 7월 1일부로 1~4지역은 평균 6% 가량 인상되었다. 이번 임금 인상으로 기업의 생산 비용은 평균 0.5~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섬유 업종의 경우 1.1~1.2%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시사점

미·중 분쟁 장기화로 인한 반사이익, RCEP, EVFTA, UKVFTA 등 양자 및 다자 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인해 베트남 섬유 및 의류 산업의 발전이 확고한 기반을 마련했다. 한국산 원단의 베트남 수출 가속화 및 품목의 다양화를 기대해 볼 수 있고 베트남에서 한국산 원자재를 사용해 섬유 및 의류를 생산해 특혜 세율로 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아세안 국가들과 차별화될 수 있다.





베트남 전기램프 및 조명기구 시장 동향

- 베트남 전기램프 및 조명기구 수입제품의 60% 이상은 중국산
- LED 조명 수출 시 에너지 라벨 인증 필수

시장동향

시장조사기관인 IMARC Group에 따르면 2021년 베트남의 전기 램프 및 조명기구의 시장 규모는 2019년 대비 28% 증가한 약 6억 4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IMARC Group은 2027년까지 베트남의 전기 램프 및 조명기구 시장은 56% 증가한 9억 4,300만 달러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수입 규모

2021년 HS Code 제8539호*의 베트남 총 수입 규모는 약 36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전 세계 국가 중 5위 수입국으로 나타났다. 1억 1,430만 달러 수입액으로 중국이 수입국 1위로 나타났으며, 2위는 818만 달러 수입액을 기록한 한국, 다음으로 일본과 대만이 3위, 4위를 차지했다.

HS Code 제9405.40호**에 속하는 품목 또한 최대 수입국은 1억1,381만 달러 규모의 중국이 차지했다. IHS Markit의 통계에 따르면 해당 HS Code류의 60% 이상이 중국으로부터 수입되었다. 그중 가장 비중이 큰 세부 분류로는 전구, 튜브 조명, 패널 조명, 스트리트 라이트, 다운라이트, 플러드라이트 등이다.

* HS Code 8539 :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LED)램프

** HS Code 제9405.40호 :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이들의 부분품

경쟁 동향 및 유통구조

베트남의 부동산 서비스 회사인 Cushman & Wakefield(CWK)의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 고층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35~40%를 차지한다. 베트남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자 친환경 제품 개발 및 제조 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베트남 내 제조공장이 있는 기업들은 제품 생산 후 자체 유통 채널을 통해 직접 유통을 하거나 혹은 유통대행사 및 에이전트를 통해 소매유통채널에 제품을 공급한다. 수입제품의 경우, 독점 계약을 선호하는 베트남 바이어 특성상 현지 수입업자에게 독점 유통권을 줌으로써 현지 바이어의 유통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제품을 유통하거나 베트남 지역별로 별도의 수입 에이전트를 통해 유통되기도 한다. 스마트 시티, 병원, 공공건물 등 프로젝트용 LED 조명 제품은 입찰을 거쳐 제품을 선정하나 브랜드 인지도와 가격이 고려된다.

시사점

베트남은 현재 경기 확대, 도시화 가속, 스마트시티와 같은 높은 수준의 인프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 컨설팅 업체 피치솔루션스(Fitch Solutions)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베트남 인프라 산업 규모는 약 47억 5,700만 달러로 추산된다. 또한 연평균 5~6%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오는 2030년에는 110억 4,400만 달러 규모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이러한 인프라 개발 추세에 따라 도로용 조명, 가로등에 대한 수요도 추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





▶ 2024년부터 하노이시 오토바이 배기가스 기준 강화

하노이시는 베트남 천연자원환경부(MONRE)의 제안에 따라 2024년부터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오토바이 소유자에게 가스 배출 벌금을 부과하거나 운행을 제한할 예정이며 2026년부터 출시 3~5년이 된 오토바이는 모두 정기 배기가스 검사를 받아야 함. 하노이시는 2023년에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대기 보호를 위한 오토바이 배기가스 제한을 구체화 할 예정이며,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마다 5년 이상 운행한 오토바이는 배기가스 검사를 실시할 예정임. 시범기간 이후인 2026년 부터 3~5년 운행한 오토바이는 정기 배기가스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준 미달 차량은 통행이 제한됨.

[Vietnam Investment Review, 8. 24]

▶ SK, 베트남 정책 개발에 참여

SK그룹은 베트남 기획투자부(MPI) 및 산업무역부(MoIT)와의 온라인 간담회에 참여하여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발전 부문에서 정책 개발 분야에 참여한다고 밝힘.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은 SK그룹이 가진 과학, 기술, 혁신에 기반한 성장 모델에 대한 경험을 계속 공유하고, 베트남의 2030년 국가 발전 전략을 달성하는 것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권유함. 특히 SK그룹의 청정에너지 및 수소관련 프로젝트 진출을 가속화 하고, 베트남국가혁신센터(NIC)와 협력하여 SK그룹이 베트남에서 실시할 시범사업 및 연구를 지원할 계획 임. 또한 녹색에너지 및 ESG 관련 전문 분야 협력을 강화 하기 위하여 베트남 산업무역부 및 기획투자부 등 각 부처 전문가를 SK그룹에 파견하여 협력 기회를 높일 예정이라고 밝힘.

[베트남 정부포털, 8. 19]

▶ 빈즈엉성 레고 공장 부지, 9월 30일 레고에 양도 예정

토지 용도 변경 문제로 난항을 겪었던 빈즈엉 성 레고 공장 부지의 문제가 9월 30일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 됨. 빈즈엉성 인민위원회장은 빈즈엉 성의 주요 투자기업인 레고의 공장 착공이 토지 문제로 지연되지 않도록 공장 부지의 토지 정리를 가속화 할 것을 요청함. VSIP-III 산업단지에 위치한 총 44헥타르 규모의 레고 공장 부지는 8월 31일 22헥타르가 1차 인도되고, 9월 30일 나머지 22헥타르가 인도될 것으로 예상됨. 레고는 베트남에 레고 생산공장을 짓기 위해 1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며, 2024년 완공할 목표를 갖고 있으나 공장 부지의 토지 용도변경 및 보상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음.

[Vietnam Investment Review, 8. 18]

▶ 베트남,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0만명의 근로자 해외 파견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40개국에 약 100만명의 현지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했다고 발표함. 노동보훈사회부는 2021년 기준, 약 30개의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10만 명의 근로자가 매년 해외에서 근무하기 시작하며, 이들이 연간 베트남으로 송금하는 외화는 30억 달러에 달한다고 전함. 약 90%의 해외 파견 근로자들은 저숙련 직무에 종사하며, 10%는 고급 기술자 및 전문가로 추정된다고 밝힘.

[베트남 정부포털, 8. 17]



▶ 베트남, 7월 자동차 판매량 전월대비 20% 증가

베트남의 7월 자동차 판매량은, 6월보다 20% 증가한 30,254대로 회복세를 보임. 해당 수치는 지난 5월까지 시행되었던 자동차 등록세 50% 감면이 종료되면서 6월 매출이 3개월 만에 최저치로 급락한 이후 보인 회복세임. 7월 가장 많이 판매된 모델로는 미쓰비시의 익스팬더로 2,711대 판매되었으며, 이어서 현대 엑센트 1,423대, 도요타 벨로즈 1,395대가 판매되었음. 1~7월까지의 자동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232,094대 판매되었음.

[VN Express, 8. 11]

▶ 베트남, 휘발유 가격 6개월 만에 최저

지난 8월 11일 기준, 베트남 휘발유 가격이 3.6~3.8% 하락하며 2월 11일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음. RON 95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0.040 달러(940 베트남동) 떨어진 1.05 달러(24,660 베트남동), E5 RON 95의 가격은 0.038 달러(900 베트남동) 떨어진 1.01 달러(23,720 베트남동)로 하락함. 8월 11일부로 베트남 휘발유 가격은 5회 연속 하향 조정되었으며, 금년 최고치였던 6월 21일과 비교하였을 때 24.22~24.98% 하락하였음.

[VN Express, 8. 11]

▶ 공안부 장관, 신규 여권에 출생지 정보 추가 결정

또 럼(To Lam) 공안부 장관은 7월 1일부터 신규 발행된 여권에 출생지 정보가 기재되지 않아 발생하는 베트남 신규여권 소지자의 유럽 입국 비자 거부 문제에 대해 크게 인식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신규 여권에 출생지 정보를 추가하겠다고 밝힘. 베트남의 신규 여권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기준에 따라 디자인 되었으며, ICAO 규정상 필수 기재 정보인 여권 종류, 이름, 여권번호, 생년월일, 성별, 여권만료일 등이 기재되어 있음. 베트남 규정상 여권에는 출생지 정보가 필요하지 않으며, ICAO규정도 의무사항이 아니라 신규 여권에는 출생지 정보가 삭제 되었으나, 쉥겐 협약국을 포함한 일부 유럽 국가들은 출생지 정보 기재를 필수 규정으로 삼음. 이에 따라 베트남 신규여권 소지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하며 2022년 7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유럽으로 출국하려던 베트남 시민들의 불편이 초래됨. 결국 베트남 공안부는 빠른 시일 내에 신규 여권에도 기존 여권처럼 출생지 정보를 포함하여 시민들의 해외 입국 편의를 제고 할 것이라고 밝힘.

[베트남 정부포털, 8. 10]

▶ 2021년 베-아세안 교역규모, 2010년 대비 10배 증가

베트남 관세총국은 베트남과 아세안 회원국간의 교역규모가 2010년 60억 달러 규모에서 2021년 600억 달러 규모로 약 10배 증가했다고 밝힘. 베트남의 대아세안 수출액은 2010년 93억 달러에서 2021년 291억 달러로 증가함. 아세안 회원국 중 베트남의 최대 수출국은 태국으로, 2021년 기준 베트남의 대태국 수출액은 61억 달러에 달하며 베트남 수출 총액의 20%를 차지함. 뒤를 이어 베트남의 수출국 순위는 캄보디아(48억 달러), 필리핀(45억 달러), 말레이시아(44억 달러)순임. 베트남의 대아세안 주요 수출 품목은 쌀, 컴퓨터, 전자기기 및 부품, 무선통신 기기 및 부품임. 한 편, 베트남의 아세안 역내 수입액은 2010년 145억 달러에서 2021년 411억 달러로 증가함.

[베트남 정부포털, 8. 8]



▶ 세계은행(WB), 2022년 베트남 경제 성장률 7.5% 전망

세계은행(WB)에 따르면, 베트남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21년 추정치 2.6%에서 2022년 7.5%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며 탄력적인 제조업과 강력한 서비스 반등이 경제 회복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 WB의 최신 경제 업데이트에 따르면 베트남 경제는 2021년 4분기에 5.2%, 2022년 1분기와 2분기에 각각 5.1%와 7.7%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고, 인플레이션율은 연간 평균 3.8%로 예상된다고 전망.

[Vietnam News, 8. 8]

▶ 2030년 목표 2050년 전망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전략 승인

레 반 탄 부총리는 지난 8월 6일 2022년 7월 26일자 ‘2030년 목표 2050년 전망 국가 기후 변화 전략’ (Decision No. 896/QĐ-TTg) 결정서에 승인함. 주요 내용은 기후 변화에 능동적·효과적으로 적응하고, 온실가스배출량을 순 제로로 감축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취약성과 위험성에 대한 고지임. 또한 기후 보호에 있어 국제사회에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기여를 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활용한 성장 모델 전환 및 경제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함. 정부는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하고, 온실가스에 악영향을 유발하는 물질을 관리 및 제거하기 위한 실행계획을 먼저 개발 및 시행할 예정임.

* 참고자료: [‘2030년 목표 2050년 전망 국가 기후 변화 전략’ \(Decision No. 896/QĐ-TTg\)](#)

[Vietnam Investment Review, 8. 6]

▶ UNDP, 베트남의 ‘녹색 도이머이’ 추진 적극 지원할 것

유엔개발계획(UNDP) 베트남 상주대표인 Caitlin Wiesen은 8월 4일 하노이에서 열린 ‘베트남 제5차 국가 환경회의’에서 베트남이 ‘녹색 도이머이’ 정책을 추진할 역량이 있다고 발언함. UNDP는 2045년까지 베트남이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이중 성장목표 달성이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기존에 도이머이 정책으로 쌓인 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임. 또한 베트남의 넷제로 달성을 위한 ‘녹색 도이머이’ 추진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함. ▲강력한 기후법안 마련 ▲재생 에너지 생산 가속화, 에너지 효율성 개선, 근로자와 취약계층 보호 ▲녹색 기금 마련을 위한 기후금융전략 강화 ▲저탄소배출 및 기후회복력 보유 경제 발전을 위한 순환경제 정책 마련 ▲식량안보강화, 재난 및 기후 변화 영향 감소 ▲인적자원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한 포용성 전환 등임. UNDP는 베트남의 경제모델 전환을 위하여 다각도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

[Vietnam Net, 8. 3]

▶ 올 1월부터 7월까지 산업생산지수(IIP),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

2022년 7월 산업생산지수(IIP)는 전월 대비 1.6%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 11.2% 증가함. 이 중 제조가 공업은 전년 동기 대비 12.8% 증가하여 최대 증가치를 보임. 올 1월부터 7월까지 산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8.8% 증가했으며, 이 중 제조업은 9.7% 증가함. 올 7개월간 전국 63개 성시 중 61개 지역의 IIP는 증가했으며, 짜빙(-30.5%), 하띤(-10.8%) 2개성에서만 감소를 보임. 올 7월 1일 기준 제조업 취업자 수는 전월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11.3% 증가함

* 참고자료: [베트남 통계청 2022년 7월 사회경제적 통계 링크](#)

[Hanoi Moi, 8. 2]



▶ 베트남 총리, 한국 기업과의 대화 주재

팜 민 쯔 베트남 총리는 7월 30일 하노이에서 박노완 주베트남대한민국 대사 임석하에 코트라 및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 대표들과의 대화를 주재함. 누적 투자 규모 기준, 대베트남 최대 FDI 투자국인 한국은 63개 성시 중 59개 성시에서 총 798억 달러 규모, 9,383개 사업에 투자하고 있음. 2021년 9월 쯔 총리는 한국 기업이 직면한 난관을 해결하고,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과의 대화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당시 제안되었던 29개의 제기사항 중 25개가 처리 되었다고 밝힘. 이에 대해 박노완 대사는 베트남의 경제 회복과 함께 한국과의 투자 관계가 돈독해지고, 교역이 성장한다면 양국 교역액 목표인 1,000억 달러 돌파는 목표인 2023년보다 더 빨리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Vietnam Investment Review, 7. 30]

▶ 남선 폐기물소각 발전소 1호기 가동 시작

7월 25일 오전 하노이시 속선현에 있는 남선 폐기물소각 발전소 1호기가 첫 가동 됨. 총 사업비는 7조동 (약 2억 9,920만 달러) 규모로 발전소는 총 5개의 소각로와 3개의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1단계 사업에서는 발전기 1호기(소각로2개)를 가동하고, 2단계에서는 발전기 2호기(소각로 2개 추가), 3단계 사업에서는 발전기 3호기(소각로 1개 추가)를 순차적으로 가동할 예정임. 3단계까지 완공되어 총 5개의 소각로가 가동된다면 일일 폐기물 소각 처리능력은 5천 톤, 일일 발전 용량은 75MW에 이를 전망이다. 생산전력의 15~25%는 발전소에서 자체 활용하며, 나머지는 베트남전력공사(EVN)에 판매할 예정임.

[VCCI News, 7. 26]

▶ 올 7개월간 FDI 도착자본 전년 대비 10.2% 증가한 115억 7,000만 달러

기획투자부 산하 외국인투자청(FIA)은 2022년 7월 20일까지 신고된 FDI 투자액은 154억 달러이며, 도착액은 전년 대비 10.2% 증가한 115억 7,000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힘. 올 1월부터 7월까지 승인된 신규 투자액은 총 57억 2,000만 달러, 927개 사업이며, 현재 진행중인 579개 사업에서 72억 4,000만 달러가 추가 투자될 예정임. 국가별로는 대베트남 투자국 중 싱가포르가 43억 달러(27.7%)로 1위를 차지했으며, 한국(21%, 32억 6,000만 달러), 덴마크(8.55%, 13억 2,000만 달러) 순으로 2, 3위를 차지함. 지역 별 투자 순위는 빈즈엉성 (26억 달러), 호찌민시(24억 3,000만 달러), 박닌성(16억 8,000만 달러)순임.

[베트남 정부포털, 7. 29]



(입찰정보)

1. 발굴 프로젝트 리스트

- La Gan 해상풍력발전소 EPC
- My Thanh 수력발전소 투자건설

* 발주처 담당자 정보 및 기타 세부사항 별도 문의(jinseul_y@kotra.or.kr)

2. 프로젝트 세부정보

- La Gan 해상풍력발전소 EPC

발주처	○ 기관명 : Asia Petroleum Energy Corporation
프로젝트	○ 현장위치 : Binh Thuan 성 ○ 규모 : 약 105억 달러 ○ 프로젝트 단계 : F/S 준비 중 ○ 세부내용 - Area : 600km2 - Capacity : 3.5GW

- My Thanh 수력발전소 투자건설

발주처	○ 기관명 : Vietnam Oil and Gas Group
프로젝트	○ 현장위치 : Bac Kan 성 Bac Kan 시 Bach Thong 군 ○ 규모 : 약 7.5 백만 달러 ○ 프로젝트 단계 : 투자자 선정 중 ○ 세부내용 - Area : 37.78ha - Capacity : 5.0MW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베트남 하노이 IT지원센터

■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은 2009년에 정보통신연구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이 통합되어 정보통신산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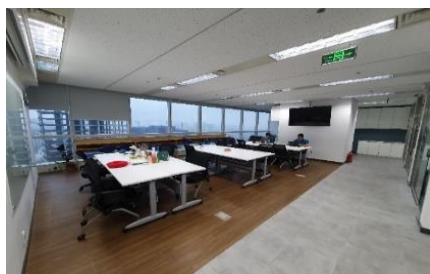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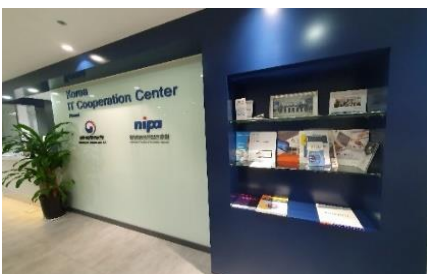
정보통신기술은 ICT 산업뿐 아니라 다른 산업의 경쟁력에도 핵심 요소이며,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여부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NIPA는 AI·SW·메타버스 등 ICT 신산업을 디지털 전환의 핵심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역 특화산업의 ICT 융합을 통해 지역 동반성장과 상생을 이끕니다. 또한, 디지털 전환의 핵심자원인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우리나라 ICT 산업이 세계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주요업무 : 1. 정보통신산업 정책연구 및 정책수립지원
- 2. 정보통신산업 육성·발전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기반조성사업
- 3. 정보통신산업 발전을 위한 유통시장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
- 4. 정보통신기술의 융합·활용관련 사업 추진
- 5. 정보통신산업 관련 국제교류·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 NIPA Hanoi 사무소(KICC : Korea IT Cooperation Center) 소개

KICC Hanoi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하노이 대표사무소로 2018년에 베트남 IT기업과 한국기업 진출 중심지인 랜드마크72 빌딩(25층)에 개소되었습니다. 센터는 우리기업 입주공간(8실), Co-work Space(20석), 회의실(2실), 운영사무실(2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노이IT지원센터는 현지 진출(예정) ICT 기업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위한 베트남 시장정보, 사무공간, 컨설팅(법률·회계 등), 네트워킹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우리 기업의 시장수요 창출을 위한 베트남 ICT관련 부처 및 유관기관과 ICT 정책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업무

- 비즈니스 환경 제공 : 입주기업 및 현지 진출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현지 비즈니스 수행 환경 제공, 비즈니스 정착을 위한 기업 제휴 컨설팅, 법률, 회계 자문 서비스 제공
- 맞춤형 인력 지원서비스 : 베트남 대학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국 기업 맞춤형 SW개발 및 기업 문화 교육을 제공하여 베트남 현지 진출 우리 기업에 연계하는 Korea IT School(KITS) 사업 운영 등 IT인력 양성 및 지원
- 스타트업 교류 및 네트워크 확보 : 정부, 스타트업, 기업 간 교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관련 사업 지원 및 정부·기관 간 공동 협업 사업 도출, 베트남 시장 진출 유망 기업 Pool 확보
- 제품 현지화 및 진출 지원 : 베트남 진출 희망 및 기 진출 국내 ICT 기업들의 현지 시장 안착 및 성공적 진출을 위한 서비스, 제품의 베트남 ICT 전문가 및 타겟 소비자층 리뷰를 통한 시장성 검증 지원

■ 최근 업무 현황

하노이 IT지원센터는 최근 베트남 정부와의 정책협력 사업과 인력양성 및 인력교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정책협력사업은 베트남 정부의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경제사회 혁신의 강한 의지와 이에 반하는 경험부족에 따른 베트남 정부의 실무적인 요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이를 통한 우리기업의 진출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SW개발인력의 부족현상이 점차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삼성, LG등의 대기업은 현지에 GDC(Global Development Center)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당 센터에서는 중소ICT기업들의 국제 경쟁력확보를 위하여 베트남 SW개발인력의 활용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말 베트남 정통부와 양국의 DX(Digital Transformation) 산업의 협력과 교류를 위하여 시작한 1차 한-베 DX포럼을, 올해는 수교30주년 기념으로 10월 12일에 2차 한-베 DX포럼을 진행할 예정이며 베트남 정보통신부의 요청으로 공장자동화분야를 주요 주제로 정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3기 KITS 인력을 기존 SW개발인력뿐 아니라 IT전문 한국어 코디네이터 교육을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개발자와 개발코디네이터인원 30여명을 배출하여 9월중에 인턴으로 우리 기업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베트남 인력활용 및 원격개발센터 또는 현지 개발센터 구축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향후 계획

우리 ICT기업의 진출이 많아짐에 따라 작년에는 약 40여개기업이 참가하여 “주베트남 국내 ICT기업 발전협의회(KICAV)”를 발족하였습니다. 또한 소모임도 점차로 활성화되어 서비스기업, 핀테크기업 등의 소모임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또한 한국내 ICT플랫폼모델을 현지에서 적용 방식의 스타트업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ICT 산업은 각 산업의 발전에 핵심적인 요소이며 반대로 ICT산업은 기존산업과의 협력 없이 홀로 발전하는 산업도 아닙니다. NIPA Hanoi 사무소는 우리 ICT기업의 발전을 지원하여 우리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베트남에서의 우리기업들의 경쟁력 향상과 사업확대에 최대한 지원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입니다.



“여행용 가방 · 캠핑용품으로 ‘25년 매출 6,000만불 목표”

트리머스 하드웨어 컴퍼니 백수영 대표(옥타 호치민지회장) 인터뷰



백수영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트리머스에 대한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트리머스는 여행용 케리어에 들어가는 부품에서부터 여행용 가방 그리고 캠핑용품을 제조 ·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베트남에서 자생한 한국회사이구요. 2007년도부터 제대로 형태가 만들어진 회사이고 현재 매출액은 약 3천만 불 정도이며 2025년도까지 6천만 불까지 올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현재는 글로벌 침체 우려가 있을 정도로 경기가 좋지 않아 쉽지는 않은 환경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행용 상품들 외에도 캠핑 용품 심지어는 차량 위에다 올리는 루프탑 텐트 쪽까지 제조 영역 확장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에서 인트레피드 캠프 기어(Intrepid Camp Gear)라는 루프탑 텐트 브랜드를 런칭했고 올 8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오버랜드 엑스포(Overland Expo)에도 출품할 계획입니다.



일본 쪽에도 저희 브랜드가 진출 하였는데요. 코로나 이전에 런칭을 했었던 트리머스 재팬 가방 상품은 최근에 일본 파트너와 같이 재런칭을 하기로 합의하고 새롭게 도약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베트남의 생산 기지를 마련한 이후 계속해서 생산 설비와 사업을 확대해 오고 계신데요. 지금까지 사업을 해오시면서 만족스러운 점은 무엇이고 아쉬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업하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본다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제가 초기에 사업을 시작했을 때 헝그리 정신을 살려서 니치마켓에 진출하고자 하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여행용 상품은 글로벌적으로 보면 니치마켓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베트남에서 생산하는 아웃도어 브랜드의 캐리어 상품은 어느정도 니치마켓을 형성할수가 있더라고요.

중국기업들에 의해서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이 되는 품목이다 보니 탈중국화를 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요. 다행히 베트남에서는 가방 회사들이 그간 중국산 부품들을 사용하면서 여러 가지 컴플레인과 애로사항 들이 누적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점에 착안을 해서 사업 구상을 하게 됐고 처음에는 트레이딩 사업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중국에 들어가서 일 년 정도 좀 고생을 하고 사업을 접은 후 베트남으로 들어와서 공장을 차린 그런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니치 마켓에 끼어들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점이 좀 만족스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저희는 현재 마지막 남은 한국계 여행용 캐리어 및 부품 제조 회사거든요. 그래서 한국계 회사라는 굉장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경쟁이나 협력을 할 만한 한국계 회사가 없는 것이 좀 아쉽기도 합니다. 현재는 여행용 상품 만으로는 비즈니스위험 분산이 충분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어 캠핑과 안전용품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는 코로나 사태 이후 다양한 부품들을 개발했었는데요. 지난 6월에 미국과 유럽에서 개최된 전시회를 통해 이들을 소개했는데 상당히 좋은 반응이 나와서 앞으로 저희가 비즈니스 다각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트리머스가 생각하는 베트남 제조업계의 생태계 현황은 어떠한가요?

현재 베트남의 제조업은 봉제업 위주로 구성이 돼 있죠. 산업이라고 하면 2차산업이 좀 발전이 돼야 되는데 현재 베트남의 경우 외국기업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2차 산업이 발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제조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봉제업 같은 경우는 이미 탈베트남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베트남의 1인당 국민 소득이 5천 불 이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면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탈베트남화와 이에따른 산업공동화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신발이나 의류산업과는 달라서 굳이 저희가 납품처를 쫓아서 나라를 옮겨 다닐 필요는 없는 업종입니다. 베트남에서 충분히 인력을 잘 양성해서 그 인력을 토대로 생산을 하고 해외 각지에 판매를 하면 되기 때문에 조금 자유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트리머스 공장 내 제조 인력 및 디자인 인력 수준은 한국 등 선진국 대비 어떠한가요?

쉽게 말씀드려 아직 1인당 생산성이 다소 저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화로 극복을 하려고 해도 자동화 비용이 과다하기 때문에 진퇴양난의 상황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스마트한 자동화로, 큰 비용이 들지 않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무인 자동화까지 꾸준하게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관심과 투자가 중요할 걸로 봅니다.

생산성이 저조함에도 인력 구하기는 다소 힘든데요. 특히 기구설계, 금형설계, 생산기술 등의 인력을 구하기가 상당히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향후 개발센터를 하이테크파크 근처로 옮길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빈투언성에 새 공장을 확보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빈즈엉성에 공장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빈즈엉성에도 이제 인력을 구하기가 힘들고 서로 인력을 빼오는 식의 방식이 만연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옥타 호치민지회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지회는 80여 명의 정회원, 70여 명의 차세대 회원 등 전체 150명 정도로 구성되어 되구요. 전문가, 기업체 오너, 사장, 법인장 등으로 이루어진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호치민의 한인 경제협의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월드옥타는 세계 134개 도시에 7,000여명의 정회원과 25,000여명의 차세대 회원으로 이루어진 글로벌 경제 네트워크이고 이 중 옥타 호치민 지회는 동남아시아 뿐만 아니라 월드옥타 내에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옥타 호치민지회에서 현재 가장 집중하고 있는 사업 영역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회원 150여명 중에서 아쉽지만 3분의 1 정도는 참여도가 아주 낮은 회원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한 100명 정도가 활성 회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내년 말까지는 활성 정회원과 차세대 회원의 규모를 200여명까지 올리고 싶다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꿈입니다.

각자의 회원이 한 명씩만 주변에 있는 좋은 인맥을 불러온다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보고요. 이러한 양적 성장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 양적 성장을 하고 나면 경제 생태계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태계 안에서 사업도 같이 운영을 할 수가 있고 다양한 정보도 교류를 할 수가 있으며 코참이나 다른 한인 경제단체와는 차별화 된 옥타 만의 생태계를 꾸려감으로 해서 옥타 회원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많은 혜택도 받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옥타 회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간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기업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규모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대체로 괜찮게 가고 있습니다만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제2의 선택을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좀 좋아지나 싶더니 갑자기 경기침체 우려가 시작되는 바람에 일부 회원들이 아직도 사업재조정을 하고있는 상황이고 그 중 일부는 계속 활동하기가 힘든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아마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회원사들의 사업재조정이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회원들이 계속해서 영입되고 있어서 현재는 단합과 상생을 같이 생각하고 확실하게 서로 맺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코로나19, 유가 및 원자재 상승, 구인난 등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인데요. 이러한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한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회사 사례를 말씀드리는데 좋겠네요.

저희가 가장 힘들게 코로나를 겪었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심할 때는 매출액이 절반으로 줄어들기도 했었어요. 2019년을 100으로 보면 2020년이 70이었고 2021년이 50이었습니다. 올해는 한 120 정도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외부 환경변화로 100정도에 그칠 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무튼 저희 회사는 원자재에 대한 위험노출이 가장 심한 회사 중에 하나예요. 경기에 대해서도 민감하구요. 그래서 저희가 캠핑 제품 등을 빠르게 개발해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옥타지회 내에서 성과를 잘 낸 기업을 찾는다면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대규모 물류사업을 하여 최대 매출을 기록하신 분도 있고요. 아시다시피 화학 쪽은 다른 분야보다는 좀 상황이 좋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에게 조언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베트남에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인건비 싸니까 대충 하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얘기에요. 인건비만 조금 쌀 뿐이지 모든 비용이 한국만큼 비싸게 현실이고 그만큼 투자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꼭 감안을 하고 들어 오셔야 합니다. ‘비용대비 생산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거래처와 협업이 잘 되려면 권한과 책임이 명확해야 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베트남 현지직원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얼마만큼 과감하게 활용할 것인가?’ 등을 꼼꼼히 고민하고 슬기롭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끝>



베트남 영주권 발급

법무법인JP 베트남사무소 지사장, 한국변호사 전현우

bhsjun@jplawvn.com | (84-4) 3724 5201~3

1. 들어가며

베트남에 거주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대부분 2년(특수한 경우에는 3년 또는 5년)의 임시거주증을 통해 베트남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호주 등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경우에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 발급을 통해 해당 국가에 영구거주하거나 아예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베트남에서 이러한 영주권을 발급받은 외국인을 만나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영주권이 발급이 되는지조차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한국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한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국에 귀화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데, 한-베트남 가정이 많음에도 베트남 국적을 취득하거나 베트남의 영주권까지 획득한 경우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의 영주권 취득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임시거주권과 영주권 발급 대상

베트남 내 외국인의 입국, 출국, 통과 및 거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시거주권과 영주권은 외교부의 출입국 관리기관 등 동일한 발급기관을 통해 발급이 되고, 베트남에 거주중인 외국인이 신청이 가능하며, 비자와 동일한 유효성을 가진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시거주권과 영주권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임시거주권은 5년이내의 기간동안 유효하나, 영주권은 그 기한이 무기한입니다. 그러나 영주권은 10년마다 재발급이 필요한 점이 있어 사실상 10년 기한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임시거주권의 경우 노동비자인 LD1, LD2비자를 비롯하여 LV, LS, DT, NN 등 각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해 발급이 가능하며, 외교 공관, 영사,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주권은 (i) 베트남의 발전과 보호에 기여하고 베트남 정부로부터 훈장이나 칭호를 수여받은 외국인 (ii) 베트남에 임시 거주하는 과학자 또는 전문가인 외국인 (iii) 베트남 시민권자이며 베트남에 영주권을 가진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보증하는 외국인 (iv) 국적이 없는 사람으로서 2000년 이후 베트남에 임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검토

위 영주권 발급 대상을 살펴보면, 무국적자를 대상으로하는 (iv)를 제외하고 다른 3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그 발급 대상이 됩니다. 각 발급 대상에 대해 살펴보면 (i) 베트남의 발전과 보호에 기여하고 베트남 정부로부터 훈장이나 칭호를 수여받은 외국인의 경우 베트남의 발전과 보호에 기여를 한 외국인 중 정부로부터 훈장 또는 칭호를 수여받는다든 매우 어려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ii) 베트남에 임시 거주하는 과학자 또는 전문가인 외국인의 경우 베트남에 거주하는 과학자, 전문가 등의 경우 다른 법률에서 해당 분야의 장관 등 기관장 추천을 받아야 하는 요건이 있어 이 또한 충족하기가 어렵습니다. (iii) 베트남 시민권자이며 베트남에 영주권을 가진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보증하는 외국인의 경우 일반적인 한-베가정을 고려할 수 있지만 ‘보증’이라고 표현되어있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보증서를 작성하는 개념이 아닌 실제 발급절차에서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필요한 경우라면 이러한 영주권 발급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만, 영주권 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들조차 실제로는 영주권 발급을 거의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영주권 발급이 베트남 국민과 동등한 내국인 대우를 받는다는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영구히 거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즉, 영주권을 발급받는다 하여도 어디까지나 외국인이기에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정치, 경제, 사회활동을 하며 적용 받는 법률과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받으며, 특히 베트남에서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투자법 등에서 외국인에게 요구하는 절차 규정 등을 동일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 받으므로 임시거주증을 가진 외국인과의 대우상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임시거주증에 비해 그 발급요건이 매우 까다로움에도 불구하고 큰 메리트가 없다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 영주권임에도 불구하고 10년마다 재발급을 해야한다는 점은 전문가의 경우 5년까지 임시거주권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이 또한 메리트가 없다 할 것입니다.

사건으로는 베트남 영주권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이하 투자법 제3항 19호 및 20호 상 외국인 투자자 또는 내국인 투자자의 개념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19. “foreign investor” means an individual holding a foreign nationality or an organization established under foreign laws and carrying our business investment activities in Vietnam.

20. “domestic investor” means an individual holding Vietnamese nationality or a business entity whose members or shareholders are not foreign investors. <끝>



베트남에서 차명으로 사업하기 (1)

로투비 Law2B | 대표 김유호 | 베트남 법무부 등록 미국변호사 | 파산관재인 | 중재인
ceo@law2b.kr | +84(0)90 438 7074

홍길동 씨는 베트남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기로 하고, 현지답사를 위해 개인 통역을 채용했다. 통역인 지양 씨는 홍 씨의 몇 다리 건너 아는 베트남인 지인의 와이프였다. 베트남에서 회계를 전공하고 한국 회사에서도 근무한 적이 있다는 지양 씨는 한국어도 잘하고 성실했다.

여러 사람을 만나보니, 모든 형태의 사업에 현지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사람도 있었고,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만 외국인 명의로 할 수 있다는 사람도 있었고, 상가나 슈퍼마켓, 푸드코트 내에서도 가능하다는 사람도 있어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러다가 베트남인 명의로 하면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실제 많은 레스토랑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도 했다.

홍 씨는 현지 조사차 여러 차례 베트남에 오가며 매번 지양 씨의 도움을 받았고, 나중에는 지양 씨 집에 초대도 받아 지양 씨 가족과도 식사를 하면서 점점 친분이 쌓였다. 그 후에는 베트남을 방문할 때면 한국에서부터 지양 씨 가족들 선물도 챙겨가고, 지양 씨 가족들 역시 홍 씨를 귀하게 대접하였다. 홍 씨는 지양 씨에게 사업을 시작하면 매니저로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지양 씨도 흔쾌히 동의하면서 모든 것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실제 투자금은 홍 씨가 모두 부담했지만 우선 지양 씨에게 정기적으로 명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조건으로 지양 씨 명의로 레스토랑을 오픈하였다. 오픈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했지만, 지양 씨와 가족의 인맥을 통해 잘 해결되었고, 이를 보면서 홍 씨는 지양 씨를 더욱 신뢰하게 되었다.

홍 씨의 레스토랑은 대박이 났고, 한국에 있던 홍 씨 조카까지 베트남으로 들어와 일손을 도와야 할 정도로 사업은 계속 번창하면서 다른 지역에 분점까지 났다. 그러면서 지양 씨 또한 레스토랑의 단순한 매니저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위치가 되었다. 그렇게 몇 년간 사업은 번창하고 있었다. 그러다가 한국인이 없는 지방에도 분점을 내고 베트남인 손님을 더 유치하려는 지양 씨와 현재처럼 한국인 기반이 있는 곳을 위주로 운영하려는 홍 씨 사이에 의견 충돌이 생기면서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지양 씨 명의로 되어 있어 레스토랑의 수익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것도 불가능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지양 씨의 협조를 받아 불법 해외 송금 서비스(일명 '환치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지양 씨가 협조해주지 않아 제때 한국으로 송금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기 시작했다.

그 무렵 지양 씨는 홍 씨에게 무리한 수준의 명의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다. 사실 홍 씨는 그동안 고마운 마음도 있고 해서 계속 올려주면서 이미 다른 곳보다 훨씬 많이 주고 있었는데,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생각이 들면서 실망도 하고 화도 나서 이를 거부했다.

그때부터였다. 지양 씨는 홍 씨의 업무 지시를 듣지 않았고, 회계 자료도 공유하지 않으며, 베트남 직원들에게는 자신의 방식을 따르도록 하였다. 베트남어를 잘하지 못하는 홍 씨는 베트남 직원들과 소통도 되지 않아 더욱더 답답했다. 홍 씨도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고, 이젠 지양 씨와의 인연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무렵 홍 씨는 건강 문제로 잠시 한국에 머물고 있었다. 그러던 중 지양 씨가 이혼하면서 홍 씨도 모르게 레스토랑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재산 분할을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홍 씨는 깜짝 놀라 지양 씨에게 연락했으나 지양 씨는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연락조차 안 되었다. 게다가 홍 씨는 지양 씨 명의의 레스토랑에 직원으로 등록해 노동허가서와 비자를 발급받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불가능해지면서 홍 씨는 옆친 데 덮친 격으로 비자 문제까지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주변의 말만 듣고 제대로 확인 한 번 하지 않은 채 쉬운 길로 가려던 홍 씨는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이는 격으로,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부은 베트남에서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베트남 투자 ·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베트남 법

- * 요식업은 2015년 1월 11일부터 100% 외국인 명의로 사업이 가능하다. 그 이전에는 시기, 위치, 조건 등에 따라 외국인 명의의 요식업 허가 여부가 달라 혼동이 있었다.
- * 한국 투자자가 베트남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경쟁자에게 비밀로 할 수 있고, 외국인 명의로 하는 것보다 절차가 간단한 장점은 있다. 그러나 사업이 번창하면 욕심이 생긴 현지 명의자에게 모두 빼앗기거나, 자신의 명의 사용을 빌미로 돈을 계속 요구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경영하는 등의 횡포를 부리는 경우도 적지 않고, 경쟁자가 차명인에게 접근해 차명인을 통해 오히려 경쟁자에게 노하우를 뺏기는 경우도 있다.
- * 차명인이 개인이라면 결혼, 이혼, 사망 등 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 차명 사업의 경우 합법적인 송금이 어렵고, 큰 액수의 송금은 은행의 자금 세탁 방지 보고 대상이기도 하다. 결국 합법적으로 들어온 돈은 합법적으로 나가야 하고, 불법적으로 들어온 돈은 불법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
- * 베트남 민법상 다른 거래를 은폐하기 위한 거래는 무효이다. 현지인 명의의 차명 회사에 대한 외국인의 권리 주장은 베트남 법상 보호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 베트남 투자법 상에서도 베트남인을 통한 차명거래 등 민법상 허위거래에 해당하는 투자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 당국이 해당 투자프로젝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시킬 수 있다.

투자법(Law No. 61/2020/QH14)

제48조. 투자 프로젝트의 종료

1. 투자자는 투자 활동, 투자 프로젝트를 다음의 경우 종료된다
2. 투자 등록사무소는 다음 경우에 투자 프로젝트 전부 또는 일부의 종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 e) 투자자가 민법에 따른 허위의 민사 거래를 기초로 투자 활동을 하는 경우

민법 (Law No. 91/2015/QH13)

제124조. 허위로 인한 민사 거래의 무효

1. 당사자가 다른 거래를 은폐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민사상 거래를 체결한 경우, 본법 또는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무효가 되지 않는 한, 허위 거래는 무효가 되고 은닉 거래는 유효하다.
2. 당사자가 제삼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목적으로 민사상 허위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거래를 무효로 한다.



베트남 통관 HOT 뉴스

FTA활용지원센터 박민설 관세사

< EPE기업 공급용 수입 건설자재 면세 프로세스 정리 >

Q : 베트남 내 EPE기업으로 공급하는 건설용 자재를 해외에서 수입공급하는 경우의 관세면세 절차와 관련 규정을 알려주세요.

A : 관세총국은 현재 EPE기업의 '하도급업자' 공급 건설자재 면세부인 결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세무절차를 준수하여야 면세를 제공합니다.

1. 통관절차 및 서류 관련

(1) 통관서류 관련

시행규칙38/2015/TT-BTC 제16조 및 개정시행규칙39/2018/TT- BTC 제1조 5항은 다음을 규정합니다.
“도급업자가 공장, 사무실 건설이나 장치 설치를 위하여 입찰결과에 따라 외국에서 비관세구역으로 직접 수입하는 물품 : 해당 도급업자를 공급자로 지정하거나 낙찰의 결과를 포함하는 수입제세를 제외한 낙찰가격이 확정된 비관세구역으로의 매매계약서 사본 1부”

(2) 통관절차 관련

시행규칙38/2015/TT-BTC 제75조, 개정 시행규칙39/2018/TT-BTC 제1조 51항은 다음을 규정합니다.
“도급업자가 EPE기업의 공장, 사무실 건설이나 장비설치를 위하여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통관절차는 EPE 기업 관할 세관지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도급업자는 수입신고서를 본 시행규칙 부록 2의 양식에 맞게 신고하여야 하고, 각주(Phần ghi chú)에 계약번호를 해당 시행규칙 16조 3항 g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고하여야 한다. 통관 후 물품은 EPE기업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 도급계약 종료 30일 내에 EPE기업 및 도급업자는 수입물품의 수량을 EPE기업 관할 관세당국에 보고하여야 하며, 본 시행규칙의 부록 5의 양식 20/NTXD-DNCX/GSQL를 사용한다.”



2. 세무정책 관련

(1) 수입관세 관련

수출입세법107/2016/QH13 제2조 2항에 따라, 국내시장에서 비관세구역으로 수출되는 물품, 비관세구역에서 국내시장으로 수입되는 물품은 수출입관세 부과대상입니다.

수출입세법107/2016/QH13 제2조 4항 c호에 따라, 외국에서 비관세구역으로 수입되어 비관세구역에서만 사용되는 물품, 비관세구역에서 다른 비관세구역으로 이전되는 물품은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수출입세법107/2016/QH13 제4조 1항에 따라, 비관세구역이란 베트남 영토에 위치하지만 법률에 따라 조성된 구역으로서 지리적으로 설정된 경계선과 외부로부터 하드펜스(Hard Fence)로 구분되고, 세관 및 관련 기관의 물품 반출입, 차량 및 승객 출입에 대한 세관검사 및 통제감독 관련 조건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관세구역과 그 외부 간의 물품 매매, 교환은 수출입 관계로 취급합니다.

기업이 외국에서 비관세구역 내 기업과의 계약 하에 공장, 사무실 건설 또는 장비 설치를 위한 물품을 수입하고, 비관세구역으로 직접 반입하는 경우 수입관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 관련

부가가치세법13/2008/QH12 제5조 20항에 따라, 시행규칙219/2013/TT-BTC 제4조 20항에 따라, 외국인과 비관세구역 간에 혹은 서로 다른 비관세구역 간 매매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비관세구역 소재 기업이 외국에서 비관세구역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물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국내기업이 비관세구역 소재 기업의 공장건설을 위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비관세구역 소재 기업에게 물품을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관세당국은 부가가치세율 0%(영세율)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시행규칙25/2018/TT-BTC 제2조 규정에 따라 세액을 공제 또는 환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공제, 환급을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세무당국과 접촉하여 지침을 받아야 합니다.

하도급업자가 주도급업자(원청자와 직접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수행하는 국내기업)와 포괄입찰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입찰계약 수행을 위하여 외국에서 베트남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입찰결과에 따른 투자자(비관세구역 입주기업)와의 공장, 사무실 건설 또는 장비 설치 관련 계약이행 시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것이 관세총국의 결론입니다.

결과적으로, EPE기업과 직접 계약을 체결한 주도급업자만이 면세규정 적용이 가능하고, 하도급업자의 경우 면세적용이 불가능함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 베트남-EU FTA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제도 정리 >

Q : 베트남에서 EU 국가로 상품을 수출 시 베트남-EU FTA(EVFTA)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나요?

A : 베트남에서 EU국가로 상품 수출시, 6000유로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이 가능하나, 6000유로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활용해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한-EU FTA 협정문 상 원산지 제품에 대해 “원산지 신고서”로써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수출금액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여 원산지 증명서 자율 발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트남의 경우 2020년 8월 1일 발효된 EVFTA(EU-베트남 FTA) 협정에서 유럽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절차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문 812/XNK-XXHH)

1. 6,000유로 초과 물품에 대해서는 베트남 산업무역부의 기관 발급 원산지 증명서를 발행해야 한다. (Form EUR.1)
2. 6,000 유로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모든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시행규칙 11/2020/TT-BCT에 따라 관련 증명 서류를 www.ecosys.gov.vn 사이트에 증명서를 자율발급한 날짜로부터 3일 내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따라서 수출 금액에 따라 자율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하며, 자율 발급을 하시더라도 관련 서류를 업로드해야 하는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 규칙에서 규정하는 관련 증명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수출신고서, 단 수출 통관을 필요로 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신고서 제출 생략
- 2) 상업 송장 사본 (원본대조필이 있는 사본일 것)
- 3) 운송서류 사본 혹은 운송서류가 없는 경우라면 운송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원본 대조필 첨부 사본일 것)
- 4)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함에 대한 증명 서류 일체
- 5) 생산자 증명서 혹은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국내 생산 사실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
- 6) 제조공정도 (원본 대조필 필요)



자율 원산지 증명서 발행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는 한국에서 기관 발급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종류와 유사하나, 5)의 생산자 증명서 혹은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의 국내 생산 사실에 대한 원산지 확인서의 경우, 시행 규칙 05/2018/TT-BCT에 따라 다음과 같은 양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PHỤ LỤC X

BẢN KHAI BÁO XUẤT XỨ CỦA NHÀ SẢN XUẤT/NHÀ CUNG CẤP NGUYÊN LIỆU TRONG NƯỚC

(ban hành kèm theo Thông tư số 05/2018/TT-BCT ngày 03 tháng 4 năm 2018 quy định về xuất xứ hàng hóa)

Tên nhà sản xuất: Công ty

Mã số Doanh nghiệp:

Số lượng:

Trị giá (FOB):.....USD

Hóa đơn giá trị gia tăng:

(Tên nhà sản xuất/nhà cung cấp nguyên liệu trong nước) xác nhận rằng nguyên liệu/hàng hóa (1) (Mô tả hàng hóa, mã HS 6 số) khai tại văn bản này được sản xuất tại nhà máy của Công ty chúng tôi tại (2)..... Việt Nam có xuất xứ Việt Nam và đáp ứng tiêu chí xuất xứ (3) theo quy định tại Chương Quy tắc xuất xứ hàng hóa trong (4)

Công ty cam kết thông tin khai báo trên là đúng và chịu trách nhiệm trước pháp luật về thông tin đã khai.

....., ngày ... tháng ... năm 20...

Người đại diện theo pháp luật của thương nhân
(Ký, đóng dấu, ghi rõ họ, tên)

Ghi chú.

- Mẫu Bản khai báo này áp dụng đối với nguyên liệu/hàng hóa có xuất xứ được sản xuất tại Việt Nam và sử dụng làm nguyên liệu đầu vào cho công đoạn tiếp theo để sản xuất ra một hàng hóa xuất khẩu khác của thương nhân để nghị cấp C/O (trừ thương nhân để nghị cấp C/O mẫu D).

(1) Trường hợp có nhiều nguyên liệu/hàng hóa cần khai báo xuất xứ, thương nhân có thể liệt kê thành một danh mục đính kèm văn bản xác nhận này (đóng dấu giáp lai của thương nhân)

(2) Ghi địa chỉ nhà máy hoặc xưởng sản xuất của Công ty tại Việt Nam

(3) Ghi tiêu chí xuất xứ cụ thể (ví dụ: CC/RVC...%)

(4) Ghi tên FTA/Thông tư... (ví dụ: VKFTA/Phụ lục I Thông tư...)



< 한국-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기준(PSR) 개정 >

Q : 베트남으로 수출 시 원산지 증명서 상 HS code 와 PSR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 : 2022년 8월 1일자로 한-베트남 FTA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의 HS 기준연도가 HS 2012에서 HS 2017로 변환되었습니다. 추후 원산지 증명서 발급 신청 시 HS2017을 기준으로 기재 HS code 및 PSR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 간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3-가에 제시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개정하는 교환각서」가 발효됨에 따라 한-베트남 FTA 부속서 3-가의 품목별 원산지기준 개정안이 2022년 8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1)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관련

한-베 FTA를 활용하는 기업 중 HS code가 변경되는 기업의 경우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변경신고가 필요합니다. 현재 관세청에서는 2022년 10월 31일까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인증 요건 충족여부 점검 후 인증사항 변경 신고시 기존의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에,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출을 하는 기업은 해당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

특히, HS 가 변경됨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도 변경되는 일부 세번 및 세번이 동일하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변경되는 품목 (아래 예시 참고) 에 대해서는 관할세관장에게 원산지 소명서 및 원산지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변경된 세번에서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시

기존 HS 2012	PSR	변경 HS 2017	PSR
2104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1. 다른 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 다만, 제1211.20호, 제1212.20호 및 제1302.19호에 해당하는 재료는 체약당사국에서 완전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210420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체약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11.20호, 제1212.21호, 제1212.29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의 재료는 체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생산된 경우로 한정한다)

2)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관련

HS code가 변경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2022년도 8월 1일부터 HS2017기준으로 발급이 필요하기에, 베트남 수출품목의 적정 세번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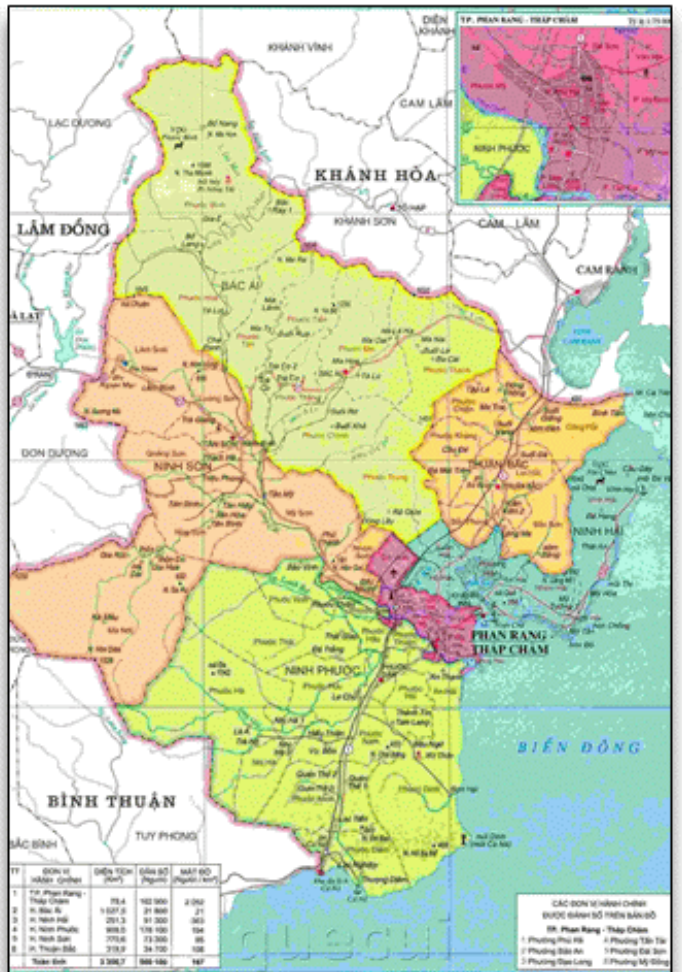
베트남 중남부 유망 투자지 - 닌투언성

□ 닌투언(Ninh Thuan)성 기본정보

구분	내용
면적-인구('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3,358km² • 인구 : 596,049명 • 도시거주 비율 : 35.41%
지정학적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닌투언성은 중남부 연해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북쪽으로는 카잉화(Khanh Hoa)성, 남쪽으로는 빈투언(Binh Thuan)성, 서쪽으로는 럼동(Lam Dong)성, 동쪽으로는 베트남 동해와 인접해 있음 • 판랑탐짬(Phan Rang-Thap Cham)시는 닌투언성의 정치·경제·문화 중심지이며, 호치민시에서 350km, 냐짱시에서 105km, 달랏시에서 110km 떨어져 있어 교역 중심지 역할을 함
접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닌투언성에는 전국과 서부고원지역[떠이응우엔(Tay Nguyen) 지역]과 연결되는 1A 국도, 27번 국도, 27B 국도, 호치민시-냐짱 고속철도 등 중요한 교통축들을 보유함
GRDP 성장률 / 1인당 GDP('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GDP 성장률 : 9% ▪ 성 1인당 GDP : US 2,929 달러/년
경제규모 / 산업별 성장률('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수출액 : US 1.3억 달러 / 총 수입액 : US 4.52억 달러 ▪ 산업별 성장률 : 공업/건설업(23.68%), 서비스업(0.02%), 농수산업(5.98%)
산업구조('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업/건설업 : 43.4%, 서비스업 : 32.8%, 농수산업 : 23.8%
노무여건('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연령 인구 비율 : 54.6% ▪ 노동연령 인구 중 직업교육 이수자 비율 : 61.67% ▪ 직업교육 이수자 중 자격증 보유 비율 : 24.81%
최저임금('21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랑탐짬(Phan Rang-Thap Cham)시, 닌하이(Ninh Hai)현, 투언박(Thuan Bac)현 : VND 3,640,000 = US 158 달러(3급지) ▪ 타 지역 : VND 3,250,000 = US 141 달러(4급지)
외국인투자 ('22.6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닌투언성 내 총 외국인투자는 36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12.04억 달러 규모 ▪ (한국) 3개 프로젝트에 걸쳐 총 1.58억 달러를 투자하여, 닌투언성에 투자한 16개 국가들 중 프로젝트 수 기준으로 3위, 투자금액 기준으로 4위 규모



□ 투자환경



닌투언성의 위치 및 지도

○ 교통시스템

닌투언성은 다른 성 대비 상대적으로 지리적 위치 상 다른 성 간의 교통이 원활한 장점이 있어 중남부 및 떠이응우옌(Tay Nguyen)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됨

- 곤툼(Kon Tum)성, 잘라이(Gia Lai)성, 닥락(Dak Lak)성, 닥농(Dak Nong)성과 럼동(Lam Dong)성을 합쳐 부르는 지역에 대한 명칭

- (도로)

- 1A 국도가 닌투언성을 관통함
- 27번 국도가 닌투언성을 달랏시 및 서부고원지역과 연결함
- 27B번 국도가 닌투언성의 박아이(Bac Ai)현을 관통하고 카잉화(Khanh Hoa)성의 깜라잉(Cam Ranh)시까지 이어짐
- 모든 현에는 마을 중앙으로 연결되는 자동차 도로가 형성되어 있음



- (항만)

- 동하이(Dong Hai) 항구 : 265m의 부두 있음
- 까나(Ca Na) 항구 : 200m의 부두 있음
- 닌즈(Ninh Chu) 항구 : 120m의 부두 있음
- 미판(My Tan) 여항 : 폭풍우 발생시 약 2,000척의 어선이 대피할 수 있는 대형 대피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500CV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음
- 30만 톤 이상의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까나(Ca Na) 종합항구 현재 건설중

- (철도) 남-북 철도가 닌투언성을 관통함

- (항공) 닌투언성은 깜라잉(Cam Ranh) 국제공항을 갖춘 깜라잉시에서 약 60km 떨어져 있음

○ 관광

닌투언성은 거의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하고 더운 기후 때문에 "햇빛과 바람의 땅"이라고 불림. 해안선이 100km 이상으로 닌투언성은 항구 및 항구 서비스, 해양 산업, 휴양지 및 해변 리조트 서비스, 새우, 캐슈넛, 가축의 고기, 특정 농산물 가공 산업 등 개발에 이점이 있음.

닌투언성에는 2022년 4월에 유네스코가 세계 새로운 생물권보호구역으로 인정한 누이주아(Nui Chua) 생물권보호구역이 있음. 누이주아 구역은 총 면적 106,600ha에 숲, 바다, 건조 지대를 포함하여 동남아시아 및 베트남의 독특한 건조림 생태계로 형성되어있음. 닌투언성은 녹색 경제, 청정 에너지, 생태관광을 개발할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보유함. 누이주아 생물권보호구역에는 누이주아 국립공원이 전 구역의 핵심 지역이며, 희귀종 동식물, 자연 경관, 산림 및 해양 다양성 등 많은 가치를 지님.



누이주아(Nui Chua) 생물권보호구역 전경



그 외에 누이주아 구역 내 베트남에서 가장 큰 해안 산호초가 있으며, 특히 경관이 웅장하고 이국적인 라이동굴(Hang Rai)은 수백만 년 된 고대 산호초가 석회화 되어 "바다 위의 높은 바위 해변"으로 비유됨.



라이동굴(Hang Rai)



빈히(Vinh Hy) 만

이 생물권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빈히(Vinh Hy) 만은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4대 만 중 하나이며,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국가급 명승지로 인정되었음. 해안도로를 지날 때 관광객들은 에메랄드 그린 해변, 흰 염전, 양 풀을 뜯는 목초지, 광대한 포도원과 사과 고수원의 풍경을 즐길 수 있음.

○ 인센티브 지원 정책

- 법인 소득세 및 토지세

* 법적 근거 :

- 법인 소득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218/2013/ND-CP 의결서(2013.12.26.)
- 투자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31/2021/ND-CP(2021.03.26.) (투자우대 분야/지역 목록 포함)
-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에 대한 제46/2014/ND-CP 의결서(2014.05.15.)

투자지역	법인세	토지 임대료 및 수면 임대료
사회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 주롱(Du Long) 공단, 프억남(Phuoc Nam) 공단, 까나(Ca Na)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15년간 세율 10% • 최초 4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9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기본 건설 기간 동안 면제(최대 3년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전체 기간 면제 •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15년간 계속 면제 •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없는 프로젝트: 11년간 계속 면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 타잉하이(Thanh Hai) 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10년간 세율 17% (2016. 1. 1. 부터 유효) • 최초 2년간 법인세 면제, 이후 4년간 50% 감면(기업이 수익을 얻은 첫해부터 적용) 	기본 건설 기간 동안 면제(최대 3년간), 이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15년간 계속 면제 •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있는 프로젝트: 11년간 계속 면제 • 투자우대 분야 목록에 없는 프로젝트: 7년간 계속 면제



- 수입세 : 수출입세법 시행지침에 대한 제134/2016/NĐ-CP 의결서(2016.09.01)에 따르면 생산 및 비즈니스 활동 분야에 따라 투자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음
 - 고정자산 형성을 위해 수입된 화물, 설비 및 기계에 대한 면세 등
 - 국내에서 생산 불가능한 원자재, 소모품, 부품에 대하여 5년간 면세 등

□ 외국인 투자현황

○ 외국인 투자

2022년 6월말까지 닌투언성 내 총 외국인투자는 36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12.04억 달러가 투자등록되어있음

○ 한국계 투자

2022년 6월말까지 빈프억성 내 한국투자는 3개의 프로젝트에 걸쳐 1.58억 달러가 투자등록되어있으며, 닌투언성에 투자한 16개의 국가들 중 프로젝트 수 기준 영국, 싱가포르에 이어 3위, 투자금액 기준으로 싱가포르, 캐나다, 영국에 이어 4위를 차지함

○ 닌투언성 내 10대 투자 프로젝트

순번	프로젝트명	투자국	투자금액 (US 달러)
1	Hanbaram 풍력 발전소	싱가포르-한국	150,000,000
2	My Son 1 태양광 발전소	태국	80,000,000
3	담나이(Dam Nai) 풍력 발전소	네덜란드	68,009,598
4	My Son 2 태양광 발전소	태국	60,000,000
5	Sinenergy Ninh Thuan 1 태양광 발전소	싱가포르	59,900,000
6	Adani Phuoc Minh 태양광 발전소	싱가포르	59,480,000
7	Phuoc Minh 풍력 발전소	싱가포르	43,800,000
8	시멘트 분쇄 스테이션	중국	8,700,000
9	새우 종자 생산 및 사업	호주	1,800,000
10	담부아(Dam Vua) 염전에서 소금 생산	스위스-러시아	1,530,000



□ 공단 현황

○ 주요 공단 정보

순번	공단명	설립년도	면적 (ha)	주요 정보	투자자 / 개발사
1	주롱 (Du Long)	2008	407.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투언박(Thuan Bac) 현 • 입주율: 1.66% • 인프라 포함한 토지 임대료: 26-35USD/m²/년(2057년까지) • 투자유치분야: 친환경 산업, 전자 조립, 컴퓨터 공학, 하이테크, 재생에너지 생산 지원 산업, 자동차/오토바이 조립, 기계, 건축 자재, 농림수산 가공, 소비재 생산 등 	Hoang Thanh Du Long Industrial Park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
2	프억남 (Phuoc Nam)	2008	3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투언남(Thuan Nam) 현 • 입주율: 18.6% • 인프라 포함한 토지 임대료: 26-35USD/m²/년(2057년까지) • 투자유치분야: 친환경 산업, 전자 조립, 컴퓨터 공학, 하이테크, 재생에너지 생산 지원 산업, 자동차/오토바이 조립, 기계, 건축 자재, 농림수산 가공, 소비재 생산 등 	Phuoc Nam – Ninh Thuan Investment Joint Stock Company
3	타잉하이 (Thanh Hai)	2015	7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판 랑 탐 째 (Phan Rang-Thap Cham)시 • 1단계(58ha): 입주율 100% • 2단계(20ha): 인프라 구축 중 • 토지 임대료: 0.28USD/m²/년 • 투자유치분야: 친환경 산업, 전자, 컴퓨터 공학, 건축 자재, 기계 제조, 의류 생산, 식품 및 수산물 가공 등 	토목 및 산업 공사 건설 투자프로젝트 관리위원회 (Management Board of Civil and Industrial Construction Projects)
4	까나 (Ca Na)	2022년 4분기 (예상)	827.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투언남(Thuan Nam) 현 • 투자유치분야: 다분야, 하이테크, 지원 산업, 친환경 산업, 자원을 절약하고 경쟁력이 있는 산업,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집중 	Trung Nam Construction Investment Corporation



□ 투자 유망분야

정부의 제115/NQ-CP 의결서에 따르면 님투언성을 전국의 재생에너지센터로 개발하고자 하는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2030년까지 비전과 2020년까지 베트남 관광 개발 마스터 플랜에 속한 국립 관광지 목록에 님투언성의 빈띠엔(Binh Tien)-빈히(Vinh Hy), 까나(Ca Na)-무이징(Mui Dinh) 관광지역을 추가하는 것을 통과하였음.

님투언성은 가공산업 및 도시경제와 관련된 첨단기술 응용 농업, 재생에너지, 고급관광 분야 개발을 우선시할 것임. 이들 분야는 님투언성의 주력 개발 분야로, 전 세계 다른 많은 국가들과 같이 ‘녹색 및 청정’ 경제 모델을 기반으로 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음.

□ 님투언성 투자유치기관 정보

기관명	담당자	연락처/이메일
님투언성 경제 개발 사무소 (Economic Development Office – EDO)	Ms Le Thi Thanh Thuy 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 +84-259-389-1677 Email: edo@ninhthuan.gov.vn Website: www.edoninhthuan.gov.vn
공단 관리위원회	Mr. Su Dinh Vinh 위원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Tel: +84-259-222-7968/ +84-913-882-299 Email: bqlkcn.nt@gmail.com Website: bqlkcn.ninhthuan.gov.vn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 협력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국과 베트남은 1992년 12월 외교 관계를 수립한 이후 지난 30년간 괄목할 협력 성과를 이루었다. 양국 간 협력이 빠르게 늘어난 것은 양국이 지리적·역사적·문화적 유사성과 공통점을 보유했기 때문이다. 한국과 베트남은 고대부터 쌀을 재배하는 농경 국가였고, 유교의 영향을 받았으며, 오랜 역사 덕분에 풍부한 문화유산을 계승 받아 높은 자긍심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났고, 베트남 역시 베트남전쟁의 상흔을 극복하며 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베트남 학자가 국가산업전략과 인프라 개선을 논의할 때 자주 한국을 예로 들고 있다.

그러나 2007년 베트남이 WTO에 가입한 이후 양국 간 협력은 주로 경제 부문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경제협력이 강화될수록 양국은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는데, 착각은 불필요한 오해를 낳곤 했다. 최근에 발생한 대표적 사례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 베트남의 방역 대응에 대한 한국인의 불만을 들 수 있다. 베트남은 방역을 전쟁에 비유하며 강력한 규율로 통제했는데, 한국인을 포함한 외국인은 이러한 사회적 풍조를 이해하지 못했다. 베트남의 방역상황과 문화에 대해 한국인이 조금만 더 잘 알고 있었고, 반대로 한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해 베트남인이 조금 더 잘 알고 있었다면 피할 수 있었던 오해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30년간의 경제, 사회, 문화 부문 협력 성과를 비교하고, 경제 부문보다 상대적으로 성과가 떨어지는 사회 및 문화 부문의 협력 고도화 방안도 함께 모색한다. 양국 관계를 지속가능하게 유지 및 발전시키려면 경제협력뿐 아니라 사회 및 문화 등 연성 권력(soft power) 부문의 협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베트남 경제·사회 협력 30년: 지속가능한 미래 협력 방안 연구](#)

[KIEP 홈페이지내 발간물-보고서-연구보고서에서 첨부파일 확인 가능](#)

원문 링크

[클릭시 해당 게시글로 이동합니다.](#)



對베트남 국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구분 국가명	1988. 1. 1~2022. 7. 20 기준 누계		2022. 1. 1 ~ 7.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한국	9,383	79,878.77	210	567.78	3,258.46
일본	4,892	65,418.55	99	534.84	1,211.84
중국	3,432	22,330.23	117	651.35	1,313.76
싱가포르	2,955	69,865.03	121	1,219.91	4,304.13
대만	2,865	35,940.79	36	350.06	672.78
홍콩	2,088	28,491.43	53	495.44	1,031.05
미국	1,174	11,027.77	41	200	306.88
버진아일랜드(영)	885	22,199.91	13	97.46	252.93
말레이시아	684	12,982.33	16	1.03	144.98
태국	664	13,156.38	18	67.09	212.11
네덜란드	394	13,577.55	16	23.84	655.73
기타	5,951	54,166.35	187	1,514.32	2,176.74
합계	35,367	429,035.09	927	5,723.13	15,541.39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對베트남 산업별 외국인투자

(단위 : US\$백만)

연번	구분 산업	2022. 7. 20 기준 누계		2022. 1. 1 ~ 7. 20		
		건수	투자금액	신규건수	신규투자금액	총투자금액
1	제조, 가공	15,752	254,365.36	247	3,974.66	10,000.45
2	부동산경영	1,039	65,352.17	40	998.16	3,211.89
3	전력, 가스, 용수 제조 공급	183	36,473.78	7	97.87	209.53
4	호텔, 외식서비스	909	12,751.66	14	2.09	55.03
5	건설	1,774	10,885.58	12	90.05	146
6	도소매, 유지보수	5,845	9,793.33	283	126.13	411.24
7	물류운수	951	5,989.43	30	146.5	248.71
8	채광	109	4,900.37	1	1.97	18.99
9	정보통신	2,588	4,822.07	112	119.83	464.95
10	교육, 양성	609	4,574.22	7	7.28	145.81
11	과학기술, 전문활동	3,950	4,474.60	146	109.7	526.2
12	농, 임, 수산	525	3,855.11	7	22.1	35.67
13	예술 오락	137	3,416.24	-	-	1
14	용수공급, 폐기물처리	84	2,991.41	2	0.853	8.67
15	의료와 사회복지	152	1,742.79	-	-	9.1
16	행정, 지원 서비스	528	1,001.87	15	3.17	21.83
17	금융, 은행, 보험	81	913.12	3	22.59	24.02
18	기타서비스	144	720.92	1	0.1	2.31
19	가구내 고용활동	7	11.07	-	-	-
	합계	35,367	429,035.90	927	5,723.13	15,541.39

자료원: 베트남 기획투자부 (MPI : Ministry of Planning & Investment)



베트남 대외교역 동향

(단위 : US\$억)

구분	2019	2020	2021	2022.7(누계)
수 출	2,641.8	2,826.5	3,363.1	2,173.4
수 입	2,530.7	2,627	3,322.3	2,162.5
무역수지	111.1	199.5	40.8	10.9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9	2020	2021	2022.7(누계)
각종 전화기 및 부품	51,378	51,183	57,537	33,904
전기전자제품 및 부품	35,925	44,576	50,828	31,721
기계/플랜트 및 부품	18,303	27,193	38,344	25,477
섬유/직물제품	32,850	29,809	32,753	22,239
신발류	18,320	16,791	17,751	1,134
원목 및 목제품	10,647	12,371	14,809	14,067
철강제품	4,210	5,258	11,795	2,807
수송수단 및 부품	8,505	9,090	10,616	6,745
수산물	8,543	8,412	8,886	6,641
원사(Yarn)	4,176	3,736	5,612	3,097
기 타	71,332	74,235	87,379	69,508
합 계	264,189	282,654	336,310	217,34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 주요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품 목 명	2019	2020	2021	2022.7(누계)
전자제품 및 컴퓨터	51,353	63,971	75,440	50,102
기계/플랜트 및 부품	36,748	37,251	46,296	26,637
각종 전화기 및 부품	14,615	16,645	21,434	12,078
의류(원단)	13,276	11,875	14,324	9,108
플라스틱 원료	8,991	8,397	11,685	7,891
각종 철강	9,507	8,066	11,523	8,005
기타 비금속	6,385	6,052	8,611	5,837
플라스틱 제품	6,538	7,274	7,959	4,898
화학제품	5,419	5,741	7,627	5,274
화학물질	5,128	5,016	7,735	5,945
기 타	95,110	92,412	119,600	80,483
합 계	253,070	262,700	332,234	216,258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8	2019	2020	2021	2022.7(누계)
1	미국	47,526	61,347	77,077	96,293	66,986
2	중국	41,268	41,414	48,905	56,009	30,006
3	한국	18,205	19,720	19,107	21,945	14,199
4	일본	18,851	20,413	19,284	20,128	13,438
5	홍콩	7,955	7,156	10,437	11,996	6,366
6	네덜란드	7,076	6,881	6,999	7,686	5,954
7	독일	6,869	6,555	6,644	7,286	5,181
8	인도	6,542	6,674	5,235	6,259	4,716
9	태국	5,494	5,272	4,917	6,161	4,171
10	영국	5,776	5,758	4,955	5,765	3,499
	기타	77,921	82,999	79,094	96,782	62,824
	합계	243,483	264,189	282,654	336,310	217,340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베트남의 주요국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순번	국가명	2018	2019	2020	2021	2022.7(누계)
1	중국	65,438	75,452	84,187	109,874	71,517
2	한국	47,497	46,935	46,895	56,155	38,159
3	대만	13,228	15,173	16,701	20,772	14,271
4	일본	19,011	19,526	20,341	22,648	13,878
5	미국	12,753	14,365	13,713	15,270	8,690
6	태국	12,023	11,656	10,968	12,564	8,187
7	오스트레일리아	3,984	4,456	4,677	7,946	6,229
8	말레이시아	7,450	7,291	6,575	8,148	5,537
9	인도네시아	4,918	5,703	5,382	7,587	5,406
10	인도	4,147	4,538	4,435	6,950	4,270
	기타	46,238	47,975	48,826	64,320	40,114
	합계	236,687	253,070	262,700	332,234	216,258

자료원: 베트남 관세청 자료



한-베트남 교역동향

(단위 : US\$백만, 증감률%)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7(누계)
수출	48,629(1.8)	48,178(-0.9)	48,510(0.7)	56,729(16.9)	37,121(20.6)
수입	19,632(21.4)	21,071(7.3)	20,579(-2.3)	23,965(16.5)	15,732(15.7)
무역수지	28,997	27,107	27,931	32,763	21,389

자료원: KITA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출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	2022.7(누계)
반도체	10,939(18.5)	10,730(-1.9)	11,501(7.2)	14,026(22)	9,556(33.0)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8,909(20.9)	7,970(-10.5)	9,552(19.9)	12,050(26.1)	7,065(26.6)
석유 제품	1,976(-0.6)	2,196(11.2)	1,196(-45.5)	1,157(-3.2)	2,529(263.1)
합성수지	1,659(15.1)	1,624(-2.1)	1,615(-0.6)	2,415(49.5)	1,740(25.2)
무선통신기기	2,631(-19.9)	2,932(11.4)	3,460(18)	3,315(-4.2)	1,435(-21.6)
기구부품	2,332(-10.7)	2,230(-4.4)	2,241(0.5)	2,405(7.3)	1,344(2.7)
철강판	1,049(6.5)	1,157(10.4)	1,052(-9.1)	1,267(20.4)	744(1.6)
자동차부품	474(23.3)	668(40.9)	673(0.8)	924(37.3)	676(23.3)
플라스틱 제품	1,205(4.6)	1,210(0.4)	1,115(-7.8)	1,174(5.3)	658(0.2)
기타기계류	877(-38.6)	842(-3.9)	686(-18.6)	717(4.5)	550(16.7)
기타	16,571	16,619	15,420	17,279	10,824
합 계	48,622	48,178(-0.9)	48,511(0.7)	56,729(16.9)	37,121(20.6)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한국의 對베트남 품목별 수입현황

(단위 : US\$백만, 증감률%)

품 목 명	2018	2019	2020	2021	2022.7(누계)
무선통신기기	4,838(22)	5,691(17.6)	4,980(-12.5)	5,579(12)	3,720(23.5)
의류	3,570(24.2)	3,646(2.1)	3,145(-13.7)	3,393(7.9)	1,935(10.9)
컴퓨터	539(-3.7)	679(25.9)	1,270(87.1)	1,659(30.6)	1,226(8.6)
신변잡화	980(23.1)	1,053(7.4)	1,029(-2.2)	984(-4.4)	719(0.2)
목재류	793(55.1)	657(-17.1)	632(-3.9)	755(19.5)	565(26.7)
산업용 전기기기	417(31.5)	479(14.8)	574(20)	725(26.2)	540(26.8)
반도체	396(5.8)	471(19.1)	561(18.9)	750(33.8)	484(20.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137(88.4)	1,197(5.2)	1,027(-14.2)	876(-14.7)	468(3.6)
기구부품	445(-10.4)	512(15.1)	481(-5.9)	624(29.6)	381(15.7)
영상기기	364(-9.1)	356(-2)	406(14)	460(13.2)	290(-5.3)
기 타	6,164	6,331	6,474	8,161	5,404
합 계	19,643(21.4)	21,072(7.3)	20,579(-2.3)	23,966(16.5)	15,732(15.7)

자료원: KITA(MTI 3단위 기준)

* 한/베 통계 집계 기준이 달라, 수치가 다소 차이남



< 2021~2022년 주요 경제지표 >

구분	시기	단위	국 가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GDP증가율	2021년(연간)	%	7.6	5.6	3.1	3.7	2.6	
	2022년 1Q	%	3.7	8.2	5.0	5.0	5.0	
	2022년 2Q	%	4.8	7.4	8.9	5.4	7.3	
생산	산업생산 (증가율 또는 지수)	2021년(연간)	-	121.8	N/A	118.1	N/A	4.8
		2022년 6월	-	129.5	9.7	130.8	N/A	9.9%
		2022년 7월	-	N/A	8.9	N/A	N/A	11.2%
	구매관리자지수 (PMI)	2021년(연간)	-	50.7	N/A	112.1	51.7	N/A
		2022년 6월	-	50.3	53.8	124.0	50.2	54.0
		2022년 7월	-	50.1	50.8	N/A	51.3	51.2
소비	소비자동향지수	2021년(연간)	-	102.1	N/A	90.5	98.4	N/A
		2022년 6월	-	108.7	N/A	N/A	128.2	N/A
		2022년 7월	-	108.8	N/A	N/A	123.2	N/A
	소매판매	2021년(연간)	-	90.7	4.5%	135.5	198.1	3.8%
		2022년 6월	-	96.7	2.7%	164.9	206.6	27.3%
		2022년 7월	-	N/A	N/A	N/A	204.9	42.6%
	소비자물가 (증가율 또는 지수)	2021년(연간)	%	2.3	4.5	2.5	106.5	1.8
		2022년 6월	%	6.7	6.1	3.4	4.4	3.4
		2022년 7월	%	7.0	6.4	N/A	4.9	3.1
투자	고정자산투자	2021년(연간)	%	118	N/A	5.6	3.8	9.2(누계)
		2022년 6월	%	N/A	N/A	N/A	N/A	△8.1(누계)
		2022년 7월	%	N/A	N/A	N/A	N/A	△7.1(누계)
고용	실업률	2021년(연간)	%	2.6	N/A	4.6	N/A	4.0
		2022년 1Q	%	2.2	6.0	4.1	5.8	2.3
		2022년 2Q	%	2.2	6.0*	3.9	N/A	N/A
무역	수출증가율	2021년(연간)	%	19.1	N/A	26.0	41.9	19.0
		2022년 6월	%	29.3	16.1	38.8	40.7	20.0
		2022년 7월	%	29.1	N/A	38.0	32.0	8.9
	수입증가율	2021년(연간)	%	20.4	N/A	23.3	38.6	26.5
		2022년 6월	%	32.5	26.0	49.3	22.0	16.3
		2022년 7월	%	33.0	N/A	41.9	39.9	3.4

* 국가별 여건에 따라 해당 통계수치가 없거나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경우 N/A로 표기, 전망치는 *표시

* 자료원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계청(DOS), The Straits Times

(필리핀) Trading Economics, YoY, Investing.com, IHS Markit, PSA, Moody's Analytics, Unemployment rate
 (말레이시아) Central Bank of Malaysia, Department of Statistics, MATRADE, Malaysian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CEIC, Moody's, Trading economics, 인도네시아 통계청, Global Trade Atlas 등
 (베트남) 베트남 통계청, 월드뱅크



GVC 재편 대응 베트남 투자 진출 설명회

□ 소개 내용

KOTRA는 베트남 무역진흥청(Vietrade)과 함께 2022 GVC 재편 대응 베트남 투자 진출 설명회·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최근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베트남의 지정학적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 정부는 재편되는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응하고 세계 경제로 더욱더 깊숙하게 편입하기 위해 각종 산업 및 교역 정책을 정비하고 해외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코자, KOTRA는 본 행사를 통해 우리기업들에게 베트남 GVC 대응 동향, 투자 환경 및 인센티브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베트남 주요 지방정부 및 산업단지 관계자를 초청하여 1:1 상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베트남 투자 진출에 관심 있는 기업들은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행사 개요

- 일시 : '22.9.21.(수), 13:00~17:00
- 장소 : 본사 지하 1층 국제회의장 및 디지털세미나실
- 주최 : KOTRA, 베트남 무역진흥청(Vietrade)
 - 베트남 무역진흥청, 지방성(타이빈성, 빈푹성, 응에안성, 빈딩성, 닌투언성)과 12개 산업단지 담당자 참가예정
- 참가 방법: 아래 배너를 클릭하여 신청링크로 참가 접수
 - * 설명회 참석기업에게 1:1 상담회 참석 기회를 드리며, 상담시간 별도 안내 예정
 - * 상담 희망 산업단지는 최대 3개까지 선택 가능, 신청순으로 1개주 상담 시간 배정할 예정
- 신청 기한: '22.9.14(수), 18:00까지

□ 프로그램 (투자환경 설명회 및 투자상담회)

시간	내용	비고
13:00-13:30	참가자 등록 및 행사소개	B1 국제회의장
13:30-13:35	VIP 소개	
13:35-13:50	개회사	주한 베트남 대사
	환영사	코트라
13:50-14:10	베트남 투자 환경 소개-GVC 재편 대응 전략	베 무역진흥청(Vietrade)
14:10-14:50	지방성 투자유치 정책 및 인센티브	베트남 지방성 관계자
14:50-15:10	GVC에서의 베트남의 전략적 가치 (글로벌 및 우리기업의 베트남 진출 현황)	코트라
15:10-15:30	Q&A, 기념촬영 및 선물교환	
15:30-17:00	커피 브레이크 & 네트워킹	B1 국제회의장 Foyer
15:30-17:00	일대일 투자상담	B1 디지털세미나실



클릭하여 신청글로 이동

